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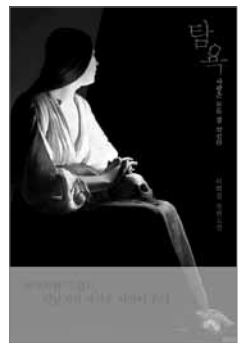
# “사랑, 독약처럼 뜨겁고 칼날처럼 차갑다”

‘탐욕...’ 펴낸 광주 출신 이화경 작가

‘고려도경’서 영감...5년간 집필

고려 말 왕실 사랑·욕망의 서사

가벼운 현대 사랑에 품는 의문



“고려인들은 분별없이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기며,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도 경솔히 합치고 쉽게 헤어졌다.” (‘고려도경’ 권 19)

작가에게 사소한 말 한마디, 순간의 단상, 잠깐의 만남 등은 소설의 모티브가 된다. 더러는 책에서 읽었던 한 문장이

오래도록 뇌리에 남아 있다가, 생명력 있는 이야기로 전이되곤 한다.

이화경 작가가 이번에 펴낸 ‘탐욕, 사랑은 모든 걸 삼킨다’(문학동네·사진)는 5년에 걸쳐 완성된 장편소설이다. 작가는 맨 처음 “고려인들은 분별없이 사랑하고”라는 문장을 접했을 때, “아, 소설로 써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분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생각이 실제 소설의 첫 문장으로 전이되기까지는 적잖은 발효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하나의 모티브가 서사화되기까지는 예외 없이 숙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제목이 도발적이고 강렬하다는 말에 “사랑이라는 욕망은 시대를 초월해 모든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작 출간 소식을 전하는 작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다. 50대 중반임에도 작가는 문학소녀의 감성과 재기발랄함을 지니고 있어 언제나 밝은 기운이 넘쳤다. 그러나 예전에는 희끗희끗하던 머리가 점점 하얗게 변해 있어, 장작의 고투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화경 작가

“소설을 몇 번이나 허물었다가 지었습니다. 지난해 봄, 힘을 좀 내 보려고 명숙에 묻어둔 뿌리를 호미로 캐서 날로 씹어 먹었습니다. 결국 한 시간 만에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쓰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야생 터덕인 줄 알고 삼켰던 뿌리는 옛날에 사약으로 쓰였었던 장륙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뭣도 모르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미소를 지었다.

어떤 사랑에 관한 소설이냐는 질문에 작가는 “독약처럼 뜨겁고, 칼날처럼 차가운 사랑”이라고 답했다. 가볍고 인스턴트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에 ‘독약 같은, 칼날 같은’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호기심이 일었다.

사실 그 말은 작가가 4년 전 소설 속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펴냈던 ‘열애를 읽는다’라는 책에 담긴 구절을 떠올리게도 했다. ‘백년의 고독’(1982년 노벨문학상)으로 유명한 멕시코 출신 가브리엘 G. 마르케스가 나이를 초월해 소녀와 사랑을 나누 뒤 ‘사랑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한

말이 있다. 당시 이화경 작가는 모두 11권의 소설 속 사랑을 소개하며 사는 동안 농처서 아쉬운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열애를 읽는다’가 주었던 사랑에 대한 작가의 이색적이면서도 강렬한 통찰 때문일까. 이번 신작 장면이 주는 아우라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이지만, 보편적인 사랑을 다룬다는 관점에서 보면, 작품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팩션’이다.

“관능적이면서도 서러운 고려 가요들의 서사적 향연, 인간 존재들의 당돌하고 뻔뻔한 욕망에 대한 깊이 있는 묘사, 왕과 황녀의 위약적인 화려함과 권력에 대한 거침없는 탐욕을 그리고 싶었어요.”

소설은 고려 충렬왕과 원나라 쿠빌라이칸의 딸(공주)과의 정략결혼에서 출발한다. 물론 충렬왕은 기존 상태로 아들과 딸이 있는 상태였다. 고려 왕비가 된 원제국 공주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충렬왕의 적자인 왕자를 밖으로 쫓아낸다. 예술적 재능이 탁월했던 고려 왕자는 불화를 그리는 스님인 금어(金魚)로 성장해, 고려 최고의 불화인 ‘수월관음도’를 그린다. 공양시주를 맡았던 부역손이라는 여인과 금어가 된 고려왕자와의 인연은 새로운 서사로 연계된다.

작가는 “소설 속 인물들은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할 수 없는 사랑과 욕망, 권력의 관계에 놓여 있다”며 “자신 또한 등장인물들이 저지르고 끄드지고 불질러 버린 온갖 운명에 가까이 연루된 공범자였다”고 덧붙였다.

소설에는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곳곳의 장면마다 고려가요의 곡조가 등장해 독자에게 또다른 맛을 선사한다. 운율의 여흥은 사랑이라는 서사와 어울려 소설의 깊이와 울림을 더한다.

김형중 평론가는 “우리 모두는 마치 초월의 겨울 늑대와도 같아서 욕망에 사로잡힌 채 평생 자신의 피를 흘려 죽어 간다는 사실을 ‘탐욕, 사랑은 모든 걸 삼킨다’는 깨닫게 한다”고 평했다.

한편 이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수화’, ‘나비를 태우는 강’, ‘꾼-이야기 하나를 세상을 회롱한 조선의 책 읽어주는 남자’, ‘버지니아 울프와 밤을 새다’ 등을 펴냈으며 현진건 문학상, 목포문학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김남조가 젊은 시인에 보내는 당부

계간 ‘시인수첩’ 봄호 출간

계간 ‘시인수첩’ 봄호(통권 56·사진)가 출간됐다.

이번 봄호 또한 원로에서부터 중진, 신예의 작품에 이르는 한국 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작품, 시평, 리뷰, 원로 시인과의 대담 등 다양한 기획들로 꾸여졌다.

‘원로 시인과의 대담’에서는 올해 등단 70주년을 맞는 김남조 시인을 서울여대 이승원 교수가 만났다.

대담에서 김남조 시인은 “그림자면서 때로는 결투하는 치열한 사이”였던 문학에 대한 생각을 기감 없이 들려주었다. 시 창작의 원동력으로서 신앙, 영성에 관한 이야기와 젊은 시인들에게 전하는 당부가 잔잔한 울림을 준다.

특집으로 ‘김중삼 시문학상’을 다뤘다.

‘김중삼 시문학상’은 한국 순수시의 지평을 넓힌 김중삼 시인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제1회 수상작에는 심보선 시인의 시집 ‘오늘은 잘 모르겠어’가 선정됐다. 심사평과 수상자 자서전, 수상소감, 작가론 등이 수록돼 있어



심보선 시인의 문학 세계를 조명할 수 있다.

‘계간시평’에는 시인인 김병호 주간의 글이 실렸다. 김 주간은 ‘초월의 또 다른 표정’에서 천서봉, 이인서, 박은형, 김경후, 오성인, 조정인 시인의 시를 분석했다.

‘한국시단-전라남도 편’에서는 시인인 김선태 목포대 국문과 교수가 ‘풍류와 저항이 깃든 시문학의 보고’를 주제로 지역 문학의 역사와 시단을 소개했다.

김 시인은 전남시단이 특성화를 꾀할 때 잃어버렸던 지역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한국현대시사를 조명하는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글도 수록돼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임곡 너브실서 1박2일... ‘문화통 플러스’ 봄호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봄호(통권 26호·사진)가 출간됐다.

이번호 ‘전남의 마을 1박2일’ 시리즈 특집에서는 광산 임곡 너브실을 방문했다. 한국 주자학의 큰 봉우리 고훨 기대승 선생의 고향이자 행주기 씨 집성촌으로 유명하다.

또 전라도문화수수께기 시리즈 16번째 순서로 ‘함평 해수점의 비밀’을 다뤘다. 함평 손불의 해수점 업소를 찾아 해수점의 역사와 원리, 효과 등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친다.

‘통 팔굴’ 코너에서는 ‘고려말의 정자 경령정(景濂亭)’을 주제로 광산탄씨 세계지 비아 월계리에 있는 경령정과 탁송정을 들여다본다.

‘남도를 빛낸 여성’ 이번호 주인공은 고산 윤선도의 8대 종손부 광주주씨, 윤씨 집안에서는 ‘한실 할머니’로 추앙받고 있는 이씨는 해남 윤씨 종가를 지키고 명맥을 잇게 한 영부(英婦)로 알려져 있다. ‘이 작가를 주목하라’에서는 서양화가 박진우씨를 만났으며 ‘광주-전남 가장 오래된 식당’에서는 나주의 ‘하얀 집’과 해남의 ‘천일식당’을 찾았다. 그밖에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스페인 프리도미술관 해외취재기를 실었다. 문의 062-226-5511.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윤씨 집안에서는 ‘한실 할머니’로 추앙받고 있는 이씨는 해남 윤씨 종가를 지키고 명맥을 잇게 한 영부(英婦)로 알려져 있다.

# 옛것을 찾아... 주말 진도 ‘남도국악원’으로 오세요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오는 30일~31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연중 20회 내외로 2018 주말문화체험을 운영한다.

2018 주말문화체험은 금~토 1박 2일 일정이며, 국악공연관람, 강강술래, 진도문화탐방 등 문화체험기회가 마련된다. 참가인원은 매회 40명으로 모집은 상시 진행되며, 신청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관계자는 “주말문화체험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삶의 여유를 느끼고 가족·친구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문



지난해 국립남도국악원이 진행한 주말문화체험 모습. <남도국악원 제공>

화체험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38)와 누리집(jindo.gugak.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문화전당·광주시 을 첫 정례협의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가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를 시작했다.

두 기관은 27일 2018년 제1차 정례협의회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열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 및 각 과장,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및 각 과장, 아시아문화원 이경운 본부장 등 각 본부장이 참석해 향후 정례협의회 운영방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 관련 협력 강화 방안, 문화예술계·시민사회와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열리며 참석자 간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필요할 때마다 수시회의를 개최, 사안에 따라 광주시 기초자치단체 등도 참석하게 될 예정이다. 이진식 직무대리와 박향 실장은 아시아 최대의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정례협의회는 오는 4월 17일 광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두 기관은 2017년 10월부터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를 매달 개최하고 있다. 오는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제6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 가능성 속옷 의명가

KCPR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습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시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속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 1588-2219